

언론재판의 영향을 받은 부급심 판결이 최고 법정에서 무죄
판결

Sheppard v. Maxwell

384 U.S. 333(1966)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 이 소송은 미국의 법리학상 유명한 소송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다. 이 사건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세상이 떠들썩하게 보도됐고, 가장 평판이 나쁘기로 유명한 재판중의 하나이다. 아마 1930 년대의 린드버그 유괴사건을 제외하고, 샘 · 셰퍼드의 시련이 20 세기에 있어서 가장 악명 높은 소송일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1954 년 6 월 4 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는데, 셰퍼드의 임신한 부인인 마릴린이 그들 자택 2 층 침실에서 매를 맞고 죽어 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관계당국에 신고한 셰퍼드는 이웃 사람인 베이 · 빌리지의 시장인 스펜스 · 후크를 불렀다. 셰퍼드는 목의 심한 통증, 부은 눈 그리고 충격 등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오하이오 주 베이 · 밀리지의 정골요법의인 셰퍼드 박사는 산만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관공리에게 했다. 즉 그는 그의 부인이 2 층으로 잠자러 올라간 후에, 아래층 긴 의자에서 졸았는데 부인의 비명을 듣고서 2 층으로 쫓아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관으로부터 비친 희미한 빛에 의해, 그의 부인 곁에 머리카락이 무성한 남자가 서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가 후에 설명한 것처럼 뚜렷하지 않은 어떤 「모습」이었다. 그는 그 사람과 맞붙잡고 싸우다가 목 뒷 부분을 얻어맞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을 차린 후 어린 아들 방으로 가서 아들이 무사함을 알았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후에,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에서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본 그는 호숫가까지 그를 쫓아간다. 셰퍼드는 모래톱에서 그 침입자와 맞붙어 싸웠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그의 주장을 진술했다.

처음부터 셰퍼드 박사는 이 사건의 제일 용의자로 취급되었다. 검시관이 그의 동료들에게 『자! 그 의사가 살인을 한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그에게 자백을 받으러 가지』라고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셰퍼드는 치료를 받기 위해 그의 가족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졌다. 진정된 후, 셰퍼드는 검시관에 의해서 그의 병실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 후 7 월 4 일 오후에, 그는 역시 베이 · 밀리지의 한 경찰관에 의해서 심문을 받았는데, 그 경찰관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역시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 경찰관은 그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늦게, 검시관에 의해서 파견된 의사가 셰퍼드에 대한 정밀한 진찰을 하도록 허가되었다.

셰퍼드 부인의 장례식날인 7 월 7 일에 한 신문이 직접 신문(訊問)의 요청을 거부하는 셰퍼드 가족에 대한 검시관의 비난을 인용 보도했다. 7 월 9 일에 셰퍼드는 검시관의 요구에 따라서 그의 집에서 그 범행의 기억을 재연했다. 이 재연은 검시관이 분명히 초청한 보도

관계자들에 의해서 취재되었다. 셰퍼드의 행위가 뉴스 매체에 그의 사진과 함께 장문으로 보도되었다. 1 면의 제목들은 셰퍼드가 거짓말 탐지기의 실험을 거부한 사실을 강조했다.

1954 년 7 월 20 일에 신문들은 1 면의 사실란을 통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살인에 대한 죄를 받지 않고 무사히 넘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 다음 날, 다른 신문의 1 면 사실은 『왜 검시가 없는가?』고 물었다. 검시관의 검시가 실제로 그날 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그 검시는 많은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이 참석했고, 검시관의 의자와 증언대에 장치된 마이크로 · 폰에 의해서 생방송되었다. 셰퍼드가 3 일의 검시기간 동안에 변호사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참석이 거부되었다.

뉴스 매체들은 역시 재판전에 증거에 대한 관계당국의 설명을 인용 보도했다. 『살인자가 살해 현장인 침실로 부터 아래층까지 피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 없앴다』는 형사의 주장과 같은 이러한 「증거」들이 결코 재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보도는 1954 년 7 월 4 일 이른 아침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셰퍼드의 설명과 대치되었다.

이 뉴스 매체들의 보도는 셰퍼드가 아내를 살해한 동기라고 추정되는 그의 특수한 사랑행각에 관한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비록 그 뉴스 매체들이 그의 많은 여자 관계를 반복해서 언급했다고 할지라도, 셰퍼드의 심리에 채택된 증언은 결코 셰퍼드가 수잔 헤이스 단 한 여자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여자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월 말경에, 신문사설들은 『경찰은 왜 1 급 용의자를 심문하지 않는가?』, 『샘 셰퍼드는 왜 감옥에 있지 않는가?』, 『늦추지 말고 그를 감옥에 처넣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 제목들이 보도된 7 월 30 일 오후 10 시에, 그는 살인혐의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기자들, 사진사들 그리고 방송해설자들을 포함한 수백 명들의 구경꾼들이 있는 베이 · 빌리지 시청으로 호송되었다.

셰퍼드사건은 1966 년 대법원에 와서야 재판이 끝났는데, 셰퍼드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수의견에 속하는 미연방대법원의 클라크 판사는 그 뉴스 기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판단했다.

『그 공표는 8 월 17 일에 셰퍼드가 기소될 때 까지 격렬했다. 이 기간동안의 전형적인 보도유형은 「샘 박사; 나는 나의 속을 터놓고 마음의 부담을 덜 무엇이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없었다」라는 1 편의 인터뷰 제목이다. 또한 그에게 불리한 공표중의 하나는, 그의 머리가 달린 스프링크스의 몸을 그린 만화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 가공할 살인사건의 해결은 내 힘만으로도 가능하다. -샘 · 셰퍼드 박사」란 제목이다. 또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 공표되었다. 「박사에 대한 증거가 배심을 위해 준비되었다」, 「셰퍼드의 뻔뻔스런 태도가 후크(베이 · 밀리지의 시장인 스펜스)에 의해 폭로되었다」, 「피가 차고에서 발견되었다」, 「새로운 살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경찰이 주장했다」, 「샘 박사는 감옥에서 마릴린에 의한 공포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

클라크 판사는 재판 전 그리고 재판 중에 보도된 다른 많은 기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그것은 셰퍼드 부인의 피살 때 부터 1954 년 12 월에 그의 유죄판결이 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세계 신문의 각 보도로 부터 발췌된 유사한 기사들이 다섯

권이다. 비록 셰퍼드의 재판기록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들로부터 발채 된 보도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매체의 대표자들을 위해서 법정에 좌석이 마련된 이래로, 전파매체에 의한 보도가 인쇄매체에 의한 보도처럼 광범위했다고 그 법정은 추정했다.

클라크 판사는 또한 셰퍼드 소송의 수석 담당청사가 민사법원판사 후보자였고, 심리를 담당한 허버트 브리먼 판사는 앞으로 재선될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서, 배심원으로 지명되리라고 예상되는 75 명이 물망에 올랐을 때 세계의 클리블랜드의 신문들이 모두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보도했다. 예상되는 배심원들 모두가 박두한 셰퍼드의 심리에 관한 익명의 편지와 전화를 받았으며 더구나 친구들로부터도 많이 전화를 받았다.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에 설치된 물질적 장치들조차도 셰퍼드 박사의 불이익을 위해서 작업된 것처럼 보였다. 심리가 열린 그 법정의 사방 크기는 단지 26×48 피트 였다. 변호사의 1 인용 탁자 뒤 칸막이 안쪽에 법정내부의 폭만큼 길게 뻗쳐진 긴 임시탁자가 약 20 명의 기자들의 재판기간동안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정된 좌석으로 설치되었다. 이 탁자의 한 끝은 수심원석으로부터 3 피트도 안떨어져 있었다. 법정의 칸막이 뒤에는 통상적인 재판을 위해서 법정에 의해 지정된 좌석과 같은 네 줄의 벤치가 놓여 있었다. 칸막이뒤의 첫째 줄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들의 대표자들에게 지정되었고, 두번째와 세번째 줄은 외지에서 온 신문사들과 잡지사들의 기자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그래서 그 법정의 대부분의 좌석들이 기자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사실 전화들이 그 법정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방에 가설되었고, 한 라디오 방송국이 재판중에 그 방으로부터 옆의 배심법정까지 재판과정을 방송하도록 허용된 가운데 배심의 평결이 있었고, 사진기자들은 휴정중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장치들과 매체에 의한 다량의 보도는 재판이 진행되는 9 주 동안 계속되었다. 재판이 개정중인 시간에 법정의 안팎을 들락거리는 기자들의 소음이 소리가 큰 확성기 장치에도 불구하고 증인들과 변호사들의 말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재판기간에 배심의 사진들이 클리블랜드의 신문에 40 회 이상 게재되었다. 그리고 샘 셰퍼드 박사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리기 전날에는 배심원들이 두 집행관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두패로 나뉘어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고, 그 사진들이 신문들에 게재되었다. 배심원들은 격리되지 않았고(법정내의 간수의 감독하에 「감금」 됨), 그대신 그들은 재판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정밖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허락되었다.

셰퍼드 사건에 대한 뉴스 매체의 격렬한 공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셰퍼드의 변호사들은 재판지 변경을 위한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길거리에서 「표본투표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셰퍼드의 유·무죄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 투표가 한 신문사설에서 「대량 배심에 의한 간섭」이라고 비난되었고, 그 사설은 변호사협회가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리블랜드에 있는 WHK 방송국이 방영한 신문기자들의 토론은 셰퍼드가 그가 선임한 유명한 변호사에게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 기고가이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퍼스넬리티인 로버트 · 콘시딘은 셰퍼드를 위증자로 비유했다. 셰퍼드의 변호사들이 브리던 판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들었는가를 배심원들에게 물어보자고 요청했을 때, 그 판사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 재판이 7 주째

접어들었을 때, 클리블랜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 두개를 통해서 월터 · 윈첼은 「뉴욕 시에서 강도죄로 체포한 한 부인이, 그녀가 쉐퍼드의 정부이었고 그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 주었다고 진술했음」을 주장했다. 2명의 배심원들이 공투법정에서 그들이 그 방송을 청취하도록 허가했다. 어쨌든, 브리던 판사는 다만 「그 고송이 그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판사가 최후 변호를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락했다.

이 사건이 비심에 넘겨졌을 때, 배심원들은 그들의 심의를 위해서 4박 5일 동안 격리되었다. 그러나 이 「격리」는 완벽하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매일 그들의 집에 전화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전화들이 호텔방으로 부터 철거되었으나, 그들은 집행관의 방에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었고 그 전화 통화는 배심원들 자신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배심원들이 통화한 사람, 또는 통화한 전화심호 또는 통화한 배심원의 명단 등에 관한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다. 집행관들은 다만 배심원들의 통화내용의 끝부분만을 들을 수 있었다.

쉐퍼드 사건이 1966년 미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다수의견에 속하는 클라크 판사는 사법행정에 관련된 뉴스매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이 침묵의 벽 뒤에서 존립할 수 없다는 원리는 「비밀재판에 대한 영국계 미국인의 불신」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책임 있는 언론은, 특히 형법분야에서, 항상 효과적인 사법행정의 보조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의 기능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공헌한 인상적인 기록에 의해서 문서로 증명된다. 언론은 단순히 재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개적 음미와 비평을 위해서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 절차에 의해서 자행되는 오심을 경계하는 것이다.』

클라크 판사의 견해를 밝힌 그의 또 다른 발언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쉐퍼드에 대한 재판 전이나 재판중에 뉴스 매체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였다. 그러나, 뉴스 매체가 결코 쉐퍼드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한 유일한 범죄자는 아니었다. 클라크 판사는 뉴스매체, 경찰, 검사관 그리고 법원 등을 골고루 비난했다. 쉐퍼드 사건의 심리판사인 허버트 · 브리던은 1960년에 사망했으나, 클라크 판사는 브리던 판사가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어야 할 조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그는 브리던 판사의 뉴스매체에 대한 조치가 쉐퍼드에게 주어진 「재판절차상의 평정과 냉정」의 권리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판사는 쉐퍼드 사건에서 특히 「소란함이 개정중인 법정을 지배했고, 언론인들이 실질적으로 방청객의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체법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했다」고 부언했다. 클라크 판사는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법정과 법원구내가 재판을 위한 통제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재판의 광란적인 분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을 수 없었다. 우리들이 에스테스(Estes)사건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어떤 측면에서 편견을 받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명백할 때, 언론의 법정출입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량의 재판전 공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쉐퍼드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것처럼 판사는 보도 기자들의 법정 이용을 통제하는 엄중한 규칙을 채택해야만 했다. 기자들의 인정 자체가 재판을 와해 시킬 수 있다는 으름가는 조짐으로 간주되어서, 많은 기자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제한될 수 없었다. 확실하게, 그들이 법정간막이의 안쪽에 자리잡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판사는 법정안의 보도 기자들의 행위를 좀더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면, 판사는 체정중에 변호인단 책상위에 놓여 있구 소송사건의 적요서를 손으로 만지거나 사진촬영을 하지 말도록 뒤늦게 요청했다』

덧붙여서, 그 심리판사는 배심원들과 증인들을 뉴스 매체로부터 격리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경찰, 증인 그리고 양쪽의 변호인단이 언론에게 기사자료, 정보 그리고 가십 등을 제공하구 행위를 통제하기 위간 어떤 노력을 해야만 했다」 클라크 판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피고가 판사의 과실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전에 행해지는 뉴스공포에 대한 범죄사실은 기소되어 질 수 있다.……더 상세하게 말하면, 그 심리법정은 재판전의 사항들을 누설한 변호사, 당사자, 증인 또는 법원 직원에 의한 재판사항 이외의 진술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았었다. 즉 심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시험의 실시에 대한 쉐퍼드의 거부, 법원 직원에게 행한 쉐퍼드의 진술, 예상되는 증인의 신분 또는 예상되는 증언내용,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확신, 또는 그 사건의 시비곡직에 관한 개진 등이다.』